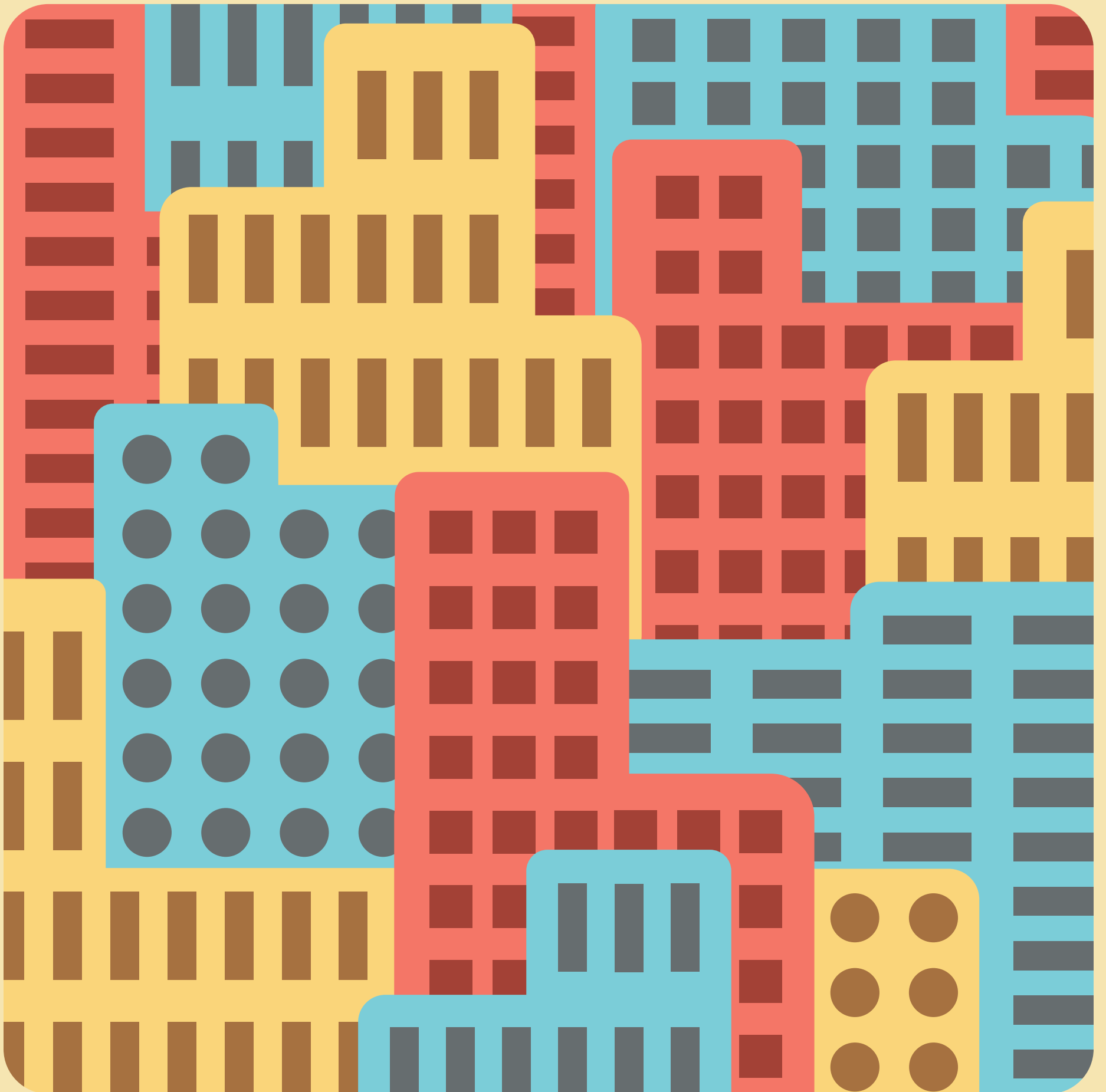


울산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소식

22년 7월호



# 여름밤, 그리고 수필의 밤.

수필문학의 밤을 소개합니다.

7월 7일 오후 6시 30분 울산수필가협회에서 '수필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더스위트 타이(음식점)을 대여해 진행되었다.

이번 수필문학의 밤 행사는 매우 다채로웠다. 배혜숙 수필가가 짧은 특강을 필두로 수필가들이 자작 수필을 낭독하는 등, 수필을 함께 나누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시작을 알리는 축하공연은 울산수필문학회 이정희 회장이 오카리나를 연주했다. 이어지는 배혜숙 수필가의 특강은 아주 흥미로웠다. '내 글의 독자는 누구일까'를 주제로 많은 독자에게 읽히는 수필, 수필 트렌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나갔다.

가족과 즐기는 화목한 저녁식사처럼, 문학의 밤은 참으로 다정했다. 코로나의 여파로 중단되었던 행사로 보이지 않았다.

울산수필가협회 고은희 회장은, 수필문학의 밤을 개최할 수 있어 기쁨을 표했다. 수필을 사랑하는 이들의 발자취가 깊어지길 바라면서, 이번 문학의 밤 행사가 수필문학을 널리 알리길 바랐다.



## FROM NOW TO NOW

시작부터 지금

2022 문화의 거리 현대미술제 보셨나요?

대규모 미술전시 '2022 문화의 거리 현대미술제'가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문화의 거리 일대 갤러리와 유희공간 7곳에서 개최됐다.

전시는 울산 중구 문화의 거리와 울산시립미술관 인근의 가기사진갤러리, 가다갤러리, 갤러리 월, 아트스페이스 그루, 갤러리 아리오소, 중구문화원 태화어울마당 등에서 열린다. 또한 올해는 새로운 전시공간으로

오래도록 운영되지 않은, (구)뉴 목련장을 전시장으로 활용했다.

올해는 '시작부터 지금'(From now to now)을 주제로 과거 우리 시대가 직면한 다양한 사건 또는 이슈를 소재로 다뤘다. 놀랄 만큼 지금과 비슷하고 반복되는 인류의 과오와 우행은 또다른 시작이기도 끝이기도 하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국내외 작가 40여 명에서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회화, 사진, 설치, 조각, 사운드, 스크리닝 등 과거의 인류의 여러가지 우행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담긴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작가들은 작품 속 은유적 표현이 관람객의 상상으로 이어지길 희망했다.

울산 현대미술제는 10년째 이어져 오는 미술전시로 매년 색다른 주제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 2022 우리동네 찰각전+

2022. 6. 1. 수 - 8. 21. 일

## 내 일상 속 숨은 매력 찾기

울산 중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2022 우리동네 찰각전을 소개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 문화 센터에서 '2022 우리동네 찰각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울산 중구의 숨은 매력을 찾기 위해 개개인의 소소한 일상을 주제로 하며 가족 및 친구 그리고 반려동물과 맛집 등 다양한 소재로, 휴대 전화로 찍은 사진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 채널 「중구생활문화센터」를 추가해 1:1채팅으로 이름, 연락처와 함께 1인 당 10장 이내의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되어 보다 넉넉한 기간에 다양한 소재의 매력을 가진 일상을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다.

중구 생활 문화 센터에서는 40점의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텀블러와 수동 사진기, 삼각대, 큰애기 인형 등을 수여한다.

'2022 우리동네 찰각전' 공모전을 통해 중구 주민들의 문화 생활 참여도를 높이고, 원도심에 활력을 넣어 중구를 더욱 널리 알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한다.

### 울산 중구의 모습

울산 중구 시민 유재광님의 작품이다.  
중구에 위치한 고층 빌딩과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함께 담아 중구의 조화로움을 표현했다.



### 오래된 도시

울산 중구 시민 서진걸님의 작품이다.  
중구 안의 도시의 시골의 어울림을 표현하며, 중구의 역사가 오래된 의미를 담아냈다.



## 수상작 함께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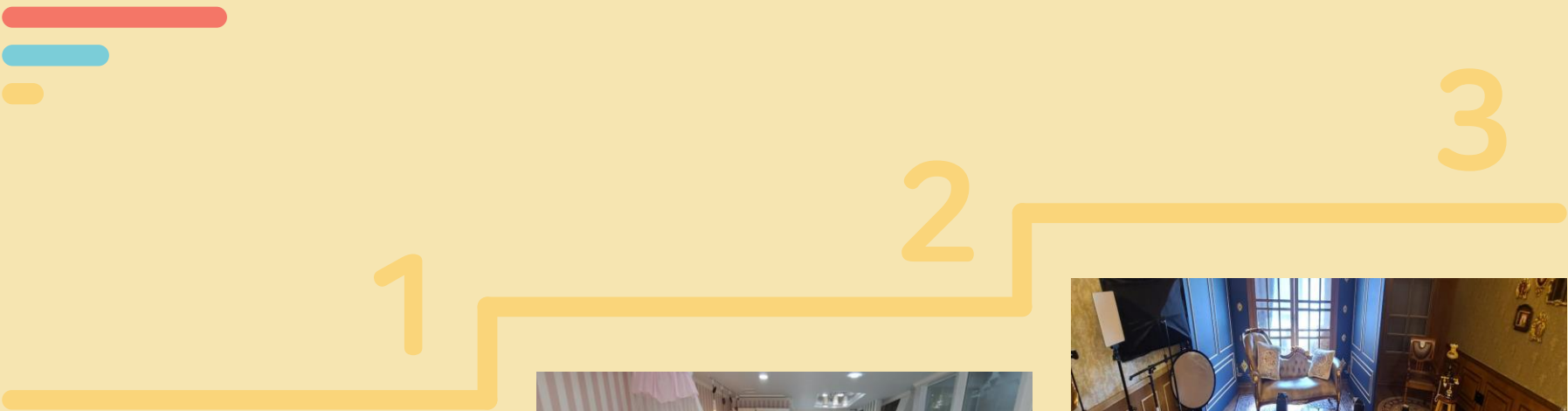


# 우리 동네 핫 플레이스

성남동의 인기 명소인 울산큰애기집을 소개합니다.

큰애기는 가수 김상희의 울산큰애기라는 노래에서 파생된 캐릭터, 울산 중구의 마스코트이다. 이 노래는 한국전쟁 휴전 직후 서울로 돈을 벌러 상경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에 대한 노래로, 고향을 떠난 울산 시민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울산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로 울산을 대표하는 노래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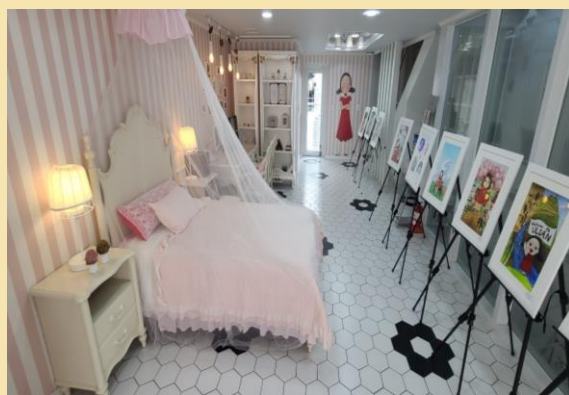
큰애기집은 이렇게 울산을 대표하는 큰애기를 주제로 하여 다양한 지역 정보를 제공해주는 관광 안내소이다. 그럼 큰애기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1층은 관광안내소와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울산큰애기 캐릭터가 인쇄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으며, 울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행 가이드를 제공하는 소책자들이 있다.

인형, 거울, 머그잔, 가방 등 예쁘고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2층은 큰애기룸이 있는 곳이며 방이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다.

가구들이 전반적으로 핑크빛을 띠고 있으며 마치 공주님의 방에 와 있는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방의 왼쪽 모퉁이에는 소원을 적어 걸어놓을 수 있는 소원 나무가 있어 이곳을 방문한다면 소원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사진찍기에 좋은 곳이다.



3층은 이팔청춘 사진관이라는 사진관이다.

전반적으로 복고풍 느낌의 감성이 풍기는 곳이며 비치된 소품들이 굉장히 우아하고 세련된 것들이 많다.

여기서 사진을 찍으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 이 사진관에는 의상실이 존재하는데 개화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의상들을 입고 사진을 찍어볼 수 있다.

가족과 연인이 함께 해 추억 쌓기 좋은 곳으로 큰애기집을 방문한다면 여기서 꼭 사진을 찍는 것을 추천한다.